

메시지 2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이자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답게 하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

성경: 엡 5:26-27, 6:17-18, 계 19:7-9, 11-16

I.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답게 하는 기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기능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용 죽이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엡 5:26-27, 6:17-18, 계 19:7-9, 11-16.

- A.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데 이르게 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 B.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답게 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기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교회를 가져온다—창 1:26.
- C.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 산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제한받아,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위해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마 4:4, 신 17:18-20, 계 19:13-14.
- D.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체로 오셔서 법리적으로 교회를 구속하셨고(요 1:14),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유기적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며(고전 15:45하, 엡 5:26, 6:17),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계 19:13-16, 17:14, 단 2:34-35, 44-45).

II. 신부로서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되어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어야” 한다.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직역하면 ‘물두멍’)으로써 교회를 깨끗이 하시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엡 5:26-27.

- A.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넣어진 후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 곧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것이다—고후 3:16-18.
- B. 과거에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을 분배하시려고(요 19:34),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엡 5:25). 현재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물두멍)’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즉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 장래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셔서, 그분께서 만족하시는 배필로 삼으실 것이다(엡 5:26-27, 비교 아 8:13-14).
- C.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았다면, 성막이 작동할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물이라는 물두멍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이 작동할 길이 없다—출 30:17-21, 엡 5:26.
- D. 성경은 두 종류의 더러움에 대해 말한다. 하나는 죄에서 비롯된 더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접촉, 곧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는 데에서 오는 더러움이다—비교 요 13:12-17.
- E.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접촉하는 데서 오는 더러운 것들을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영으로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
 - 1. 생명 주시는 영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며,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현재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헬, 레마)은 우리를 씻어 주는 말씀이다.
 - 2.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김을 얻는 길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엡 6:17-18.
 - 3. 만일 매일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실지적인 체험에서 그 영은 계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그 영이기 때문이다—요 6:63, 엡 6:17.

4. 우리에게 주님의 현재의 말씀이 있는 한, 생명 주시는 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 F.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주시는 영의 씻으시는 능력을 예표한다. 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위치한 것은 물두멍의 씻는 능력이 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1. 제단(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과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씻으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6:11, 딤후 3:5.
 2. 물두멍의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생명 주시는 영께서 측량할 수 없으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상징한다—요 3:34.
- G. 물두멍은 회막의 입구에서 봉사한,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들에서 나온 놋으로 만들어졌다—출 38:8.
 1. 놋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비교 민 16:38-39, 21:9.
 2. 놋으로 된 물두멍은 반사하고 폭로할 수 있는 거울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우리의 필요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의 검을 받는 것이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엡 6:17-18상.

- A. 관계대명사(which)의 선행사는 '검'이 아니라 '영'이다(영어 회복역 참조).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가리킨다. 그 영과 말씀 모두 그리스도이시다—고후 3:17, 계 19:13.
- B.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적을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주신다.
- C. 검, 그 영, 말씀은 하나이다. 성경 안의 항상 있는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대적을 죽이는 검이신 그 영이다.
- D.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살육하기 위한, 죽이는 도구인 검을 체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원수가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의 요소들을 처리하는 것이다—엡 6:17-18.
- E.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길이다.
- F. 자아가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더욱더 죽음에 넘겨진다.
- G.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살육된다. 결국 최악의 원수인 자아도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